

인사말

지난 4년 동안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직영사찰 등에서 열심히 복무한 여러 종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돌아보면 종단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았으나, 여러분의 지혜와 공심(公心)으로 잘 헤쳐 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종무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노고와 종단의 성과가 묻혀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 비단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종단이 우리만의 안위에 노심초사하던 시기는 이미 한참의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며,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종교 본연의 올바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난날을 성찰하여 과오와 허물을 드러내서 참회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국민과 함께, 세상과 함께 종교적 감동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정진하는 종단이 되어야 하며, 지난 4년의 여러 성취들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몇 년 생색내다 말 일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절실하게 이 길을 걷고자 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33대 집행부는 종단 안팎으로 종단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 시기였습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모두 종단이라는 틀 속에서 사찰의 분담금, 각종 기부를 주된 근간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처럼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을 대표자와 임직원들이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무원의 신심과 원력 또한 어느 때보다 비교 강조되었고 인적구성원의 효율

적 운용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종법은 교역직 종무원을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라고 해서 자기 사정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교역직 종무원은 그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종단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새로 임명받은 교역직 종무원 또한 맡은 소임의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종단을 위해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봉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일반직 종무원 또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만 해도 30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이며, 이는 종단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외형적 증거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것이며, 어찌면 이미 오래 전에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의 일반직 종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조건 등이 주된 관심사였고 역대 총무원장들은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외부의 잣대에만 기대어 경제적인 가치로만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찰의 종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종무원들인 여러분들이 종도들에게 더 신심있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 조건의 안정성 속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더욱 더 관료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님들과 신도들을 고객으로 잘 받들고 있는지 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를 모아, 한 발 앞서 살을 깎는 고통을 견디며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외없이 비판과 채찍의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은 자명합니다. 안일한 생각,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은 모두 다 버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떳떳하고 바르게 임하여 희망의 34대 집행부를 함께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쓴 얘기들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수고에 깊

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두루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